

2026. 상반기 이슈+생각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교육 이슈를 소개합니다.

수업방해행동에 대한 경남 교육공동체의 실태와 인식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연구위원)

수업방해 문제의 심각성이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OECD의 TALIS¹⁾ 2024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 교사들은 학급 질서 유지 스트레스, 학생 위협 및 언어폭력, 교직 후회 등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업방해행동에 대한 경남지역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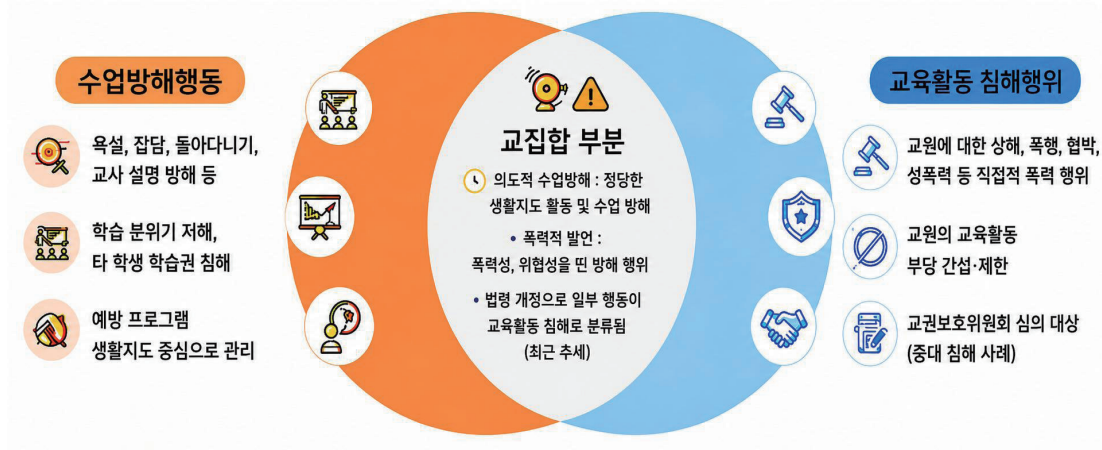
Part 1 | 수업방해행동의 성격과 현황

- 수업방해행동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교수 행위 진행을 방해하거나 행동의 주체인 학생 자신과 급우의 학업 집중과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으로²⁾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그 개념이 겹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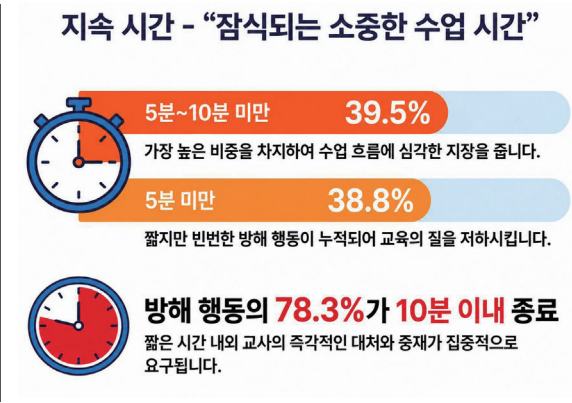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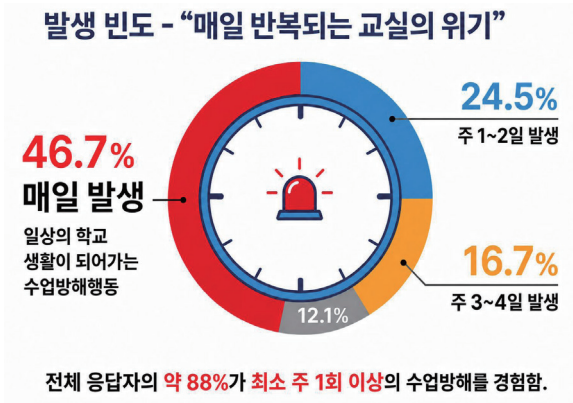


- 최근 교원지위법(약칭) 및 교육부 고시³⁾ 개정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포함됨.

1) OECD가 2008년부터 5-6년 주기로 하는, 유·초·중등 교원 대상의 각국 교직 환경 분석 국제조사임.
2) 함지혜, 조한익(2024). 초등학생용 수업방해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아동교육 33(2).
3) 교육부(2024).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TALIS 2024 조사 결과, 교직 스트레스로 한국 교사들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교사 비율은 OECD보다 높았으며⁴⁾, 2018년보다 학부모 민원, 학생 위협, 교실 질서 유지 등의 스트레스 원인이 모두 증가 추이를 보였다.⁵⁾
- 경남의 경우 전체 교사의 약 68.3%가 당해 연도 학급 및 교과 수업 중 수업방해행동을 경험하였음(경험 비율: 초등 72.7% > 중·고 63.7%). 수업방해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의 경우 '심각성'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51.1%)와 '심각하지 않다'(48.9%)는 의견이 팽팽하였으며, 발생 빈도 및 지속시간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다음 그림과 같음.⁶⁾



- 수업방해행동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학교 내의 교육활동 위축 및 교사의 교직 매력도 저하와 교직 회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교실 붕괴와 교육의 질적 저하의 주원인이 됨.
- 10분 이내의 수업방해행동이라 하더라도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주므로 이의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경남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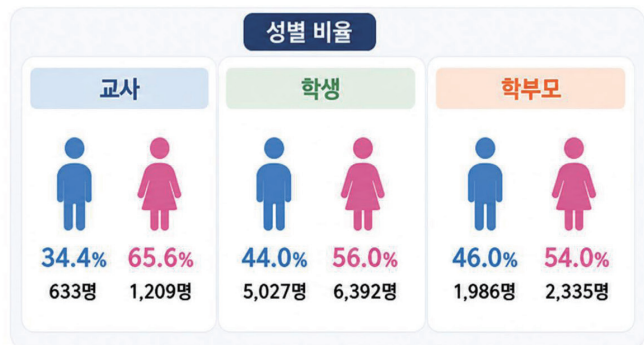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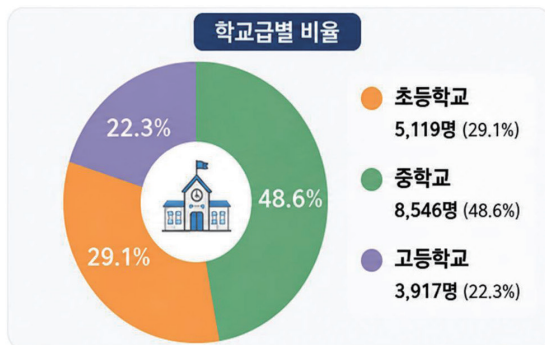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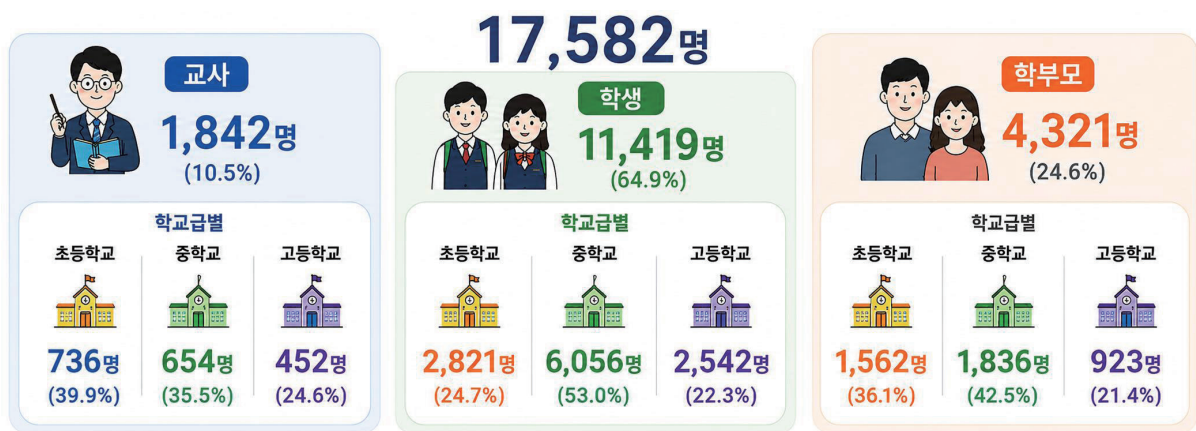
4) OECD(2025), Results from TALIS 2024: The State of Teaching, TALI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0df6235-en>.
 5) 한국교육개발원(2025. 10. 10.). “한국교육개발원, OECD 주관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 TALIS 2024 결과 발표” 보도자료 (*참고: 중학교 대상 결과임).
 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수업방해이음교실 선도학교 분석 연구 자료, 1,443개 학교 초·중·고 교원 4,29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Part 2 | 수업방해행동 경남 교육공동체 실태 및 인식 조사⁷⁾

■ 분석 대상과 조사 도구

● 분석 대상

· 설문조사에는 총 17,582명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학생 11,419명(64.9%), 학부모 4,321명(24.6%), 교사 1,842명(10.5%)임.



· 학교급별 참여 비율은 중학교가 8,546명(48.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5,119명(29.1%), 고등학교 3,917명(22.3%) 순이었음.

· 성별로는 학생(남 44.0%, 여 56%), 교사(남 34.4%, 여 65.6%), 학부모(남 46.0%, 여 54%)로 모든 집단에서 여성 비율이 높았음.

7) 조사대상: 경남 초·중·고 학생(초5 이상), 학부모, 교사, 조사기간: 2026.04.21.~04.24.,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17,582명(학생 11,419, 학부모 4,321, 교사 1,842, 불성실 응답 제외).

• 조사 도구

- 수업방해행동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진행방해 행동 (7문항), 학생 단독행동(10문항),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7문항)의 세 개 범주에서 총 24개 문항을 설계하여 조사함.
- 세 개 범주에 대해 교사용 문항은 관찰 결과를 중심으로, 학부모 문항은 인식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학생용 문항은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설계하여 설문 응답 과정에 자기성찰 기회를 갖도록 구성하였음.

	교사/학생용	학부모용
수업진행방해 (교사-학생)		
학생 단독행동 (학생 개인)		
급우 수업참여방해 (학생-학생)		

[수업방해행동 실태 및 인식 조사 문항(리커트 5점 척도)]

- 수업방해행동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위의 수업방해행동 세 범주에서 각 문항 유형별로 조언, (별도)상담, 주의/경고, 훈육, 훈계, 자리 변경, 보조인력 지원, 학부모 상담 등 9개 수업방해행동 대응 방안 중에서 1개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음.
- 보다 구체적인 교육공동체의 수업방해행동 대응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공통으로 수업방해행동 완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서술형 문항 1개를 설계함.

교사용 선택형

24개

수업방해행동 유형

9개

대응 방안 중 1개 선택

○ ○ ○ ○ ○ ○ ○ ○ ○ ○

1 2 3 4 5 6 7 8 9

교육공동체용 교사·학생·학부모

서술형 1문항

범주 수업진행 방해행동(7유형) · 학생 단독행동(10유형) ·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7유형)

대응 방안 조언 (별도)상담 주의/경고 훈육 훈계 자리 변경 보조인력 학부모 상담 기타

수업방해행동 완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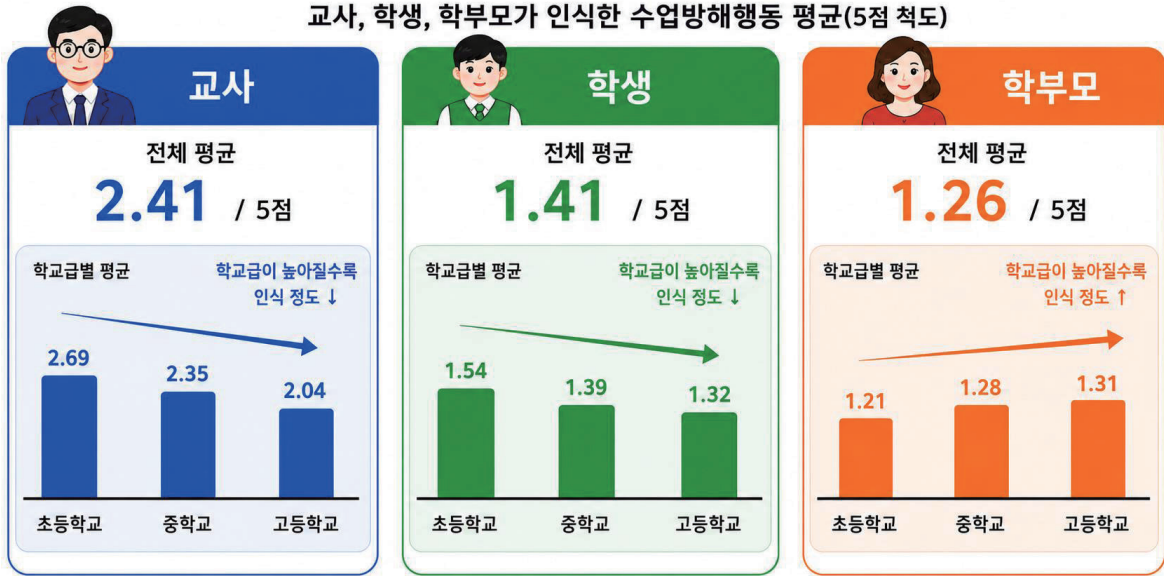
[교사 수업방해행동 대응 방안(선택형, 서술형)]

■ 수업진행 방해행동

- 수업진행 방해행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학부모는 정반대의 인식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임.
- 교사 평균은 초등학교 2.69, 중학교 2.35, 고등학교 2.04였으며, 학생 평균은 초등학교 1.54, 중학교 1.39, 고등학교 1.32로 나타났으나 학부모 응답에서는 고등학교 평균이 1.3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28, 초등학교 1.21 순으로 나타남.

수업방해행동 실태 및 인식 | 수업진행 방해행동(교사-학생 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인식한 수업방해행동 평균(5점 척도)



- 교사가 '흐름 저해(2.75)·준비 부족(2.67)·훈육 불응(2.61)'을 높게 인식한 반면, 학생은 '준비 부족(1.60)·신체적 공격(1.53)·언어적 공격(1.44)', 학부모는 '수동적 거부(1.48)·흐름 저해(1.25)·훈육 불응(1.06)'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았음.
- 즉, 교사는 수업 운영의 방해, 학생은 준비 부족과 함께 공격적 행동을, 학부모는 태도적 거부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 · 학생 · 학부모의 수업방해행동 인식 TOP 3 (수업진행 방해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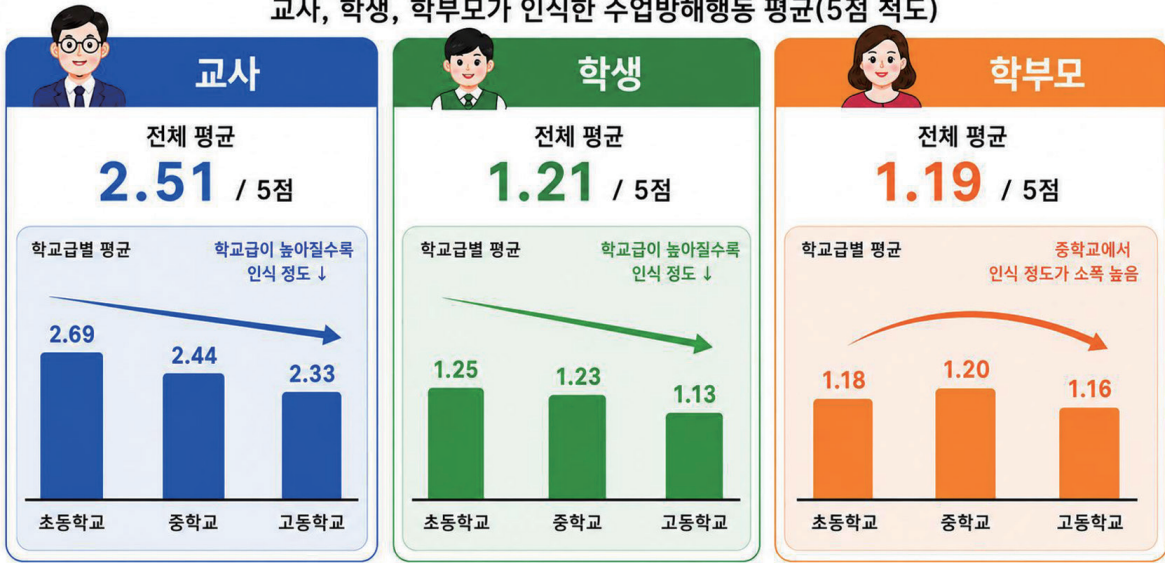
대상	순위	행동	평균
교사	1	흐름 저해	2.75
	2	준비 부족	2.67
	3	훈육 불응	2.61
학생	1	준비 부족	1.60
	2	신체적 공격	1.53
	3	언어적 공격	1.44
학부모	1	수동적 거부	1.48
	2	흐름 저해	1.25
	3	훈육 불응	1.06

■ 학생 단독행동

- 학생 단독행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 응답에서는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교사가 가장 높게 인식함.
- 구체적으로 교사 평균은 초등학교 2.69, 중학교 2.44, 고등학교 2.33, 학생 평균은 초등학교 1.25, 중학교 1.23, 고등학교 1.13이었음. 반면에 학부모 응답에서는 중학교 평균이 1.20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1.18, 고등학교 1.16 순으로 나타남.

수업방해행동 실태 및 인식 | 학생 단독행동(학생 자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인식한 수업방해행동 평균(5점 척도)



- 교사와 학생 모두 '학습 무기력'을 1순위로 인식하였지만, 교사는 '자세 불량·수면·휴식'까지 높게 보았고, 학생은 '디지털 등 이탈·수면·휴식'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 학부모는 '디지털 등 몰입, 준비성 결여' 등을 중심으로 보아, 학교 안의 관찰 행동보다는 가정에서 확인가능한 태도와 생활 습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음.

교사·학생·학부모의 수업방해행동 인식 TOP 3 (학생 단독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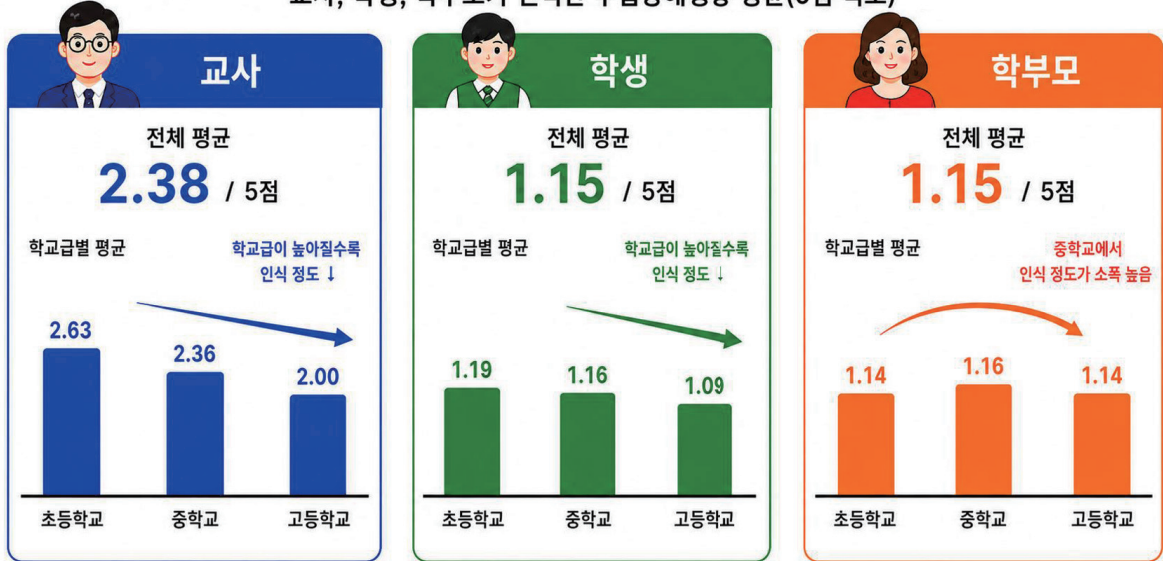


■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

-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응답에서 모두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교사의 평균은 초등학교 2.63, 중학교 2.36, 고등학교 2.00이었고, 학생의 평균도 초등학교 1.19, 중학교 1.16, 고등학교 1.09로 같은 흐름을 보였으나, 학부모의 경우 중학교 평균이 1.16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1.14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

수업방해행동 실태 및 인식 |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학생-학생 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인식한 수업방해행동 평균(5점 척도)



-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잡담 소란'을 1순위로 보았고, 학생의 경우 '물건 침해'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 교사는 '잡담 소란·사적 소통·언어 폭력'처럼 수업 분위기 저해를, 학생은 또래 간 직접 피해를, 학부모는 눈에 잘 드러나는 소란과 침해 행동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음.

🎯 교사·학생·학부모의 수업방해행동 인식 TOP 3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

대상	순위	행동	평균
교사	1	잡담 소란	2.84
	2	사적 소통	2.60
	3	언어 폭력	2.46
학생	1	물건 침해	1.22
	2	잡담 소란	1.21
	3	사적 소통	1.17
학부모	1	잡담 소란	1.19
	2	언어/신체 다툼	1.14
	3	소외 조장	1.11

Part 3 | 수업방해행동 대응 교육공동체 요구

■ 교사 수업방해행동 대응

· 수업진행 방해행동, 학생 단독행동,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의 수업방해행동에 대한 범주별 대응 방식에 대한 평균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음. 수업방해행동에 대한 방안으로 교사들의 주된 방안은 주의/경고, 학부모 상담, 조언, 훈육, 상담 등이 활용되고 있었음.

범주별 대응 방식 평균 분포

단위: 응답비율(%)

수업진행 방해행동	9.3	13.2	21.9	12.4	8.0	0.7	10.8	17.4	6.2
학생 단독행동	14.6	11.0	33.6	13.8	7.2	0.3	6.3	10.2	2.9
급우 수업 참여 방해	6.2	11.1	25.2	13.5	12.7	2.2	6.2	17.5	5.3
	조언	상담	주의/경고	훈육	훈계	자리변경	보조인력	학부모 상담	기타

· 각 범주별로 상위 3개 대응을 살펴보면, 주의/경고는 3개 범주 모두의 기본 대응 축이었음. 주의/경고와 조언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부모 상담과 훈육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은 평균 경향을 보였음.

수업방해행동 범주별 교사 주요 대응

단위: 응답비율(%)



- ① 수업진행 방해행동 중 준비 부족, 주의 결여, 잦은 소란 등 일상적인 수업방해행동에서는 '주의·경고'를 가장 많이 선택함. 교실에서 교사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대응 기준과 단계별 절차가 중요해 보임.
- ② 학생 단독행동에서 학습 무기력, 회피 행위, 수동적 거부 등은 단순 경고로만 해결되기 어렵고, 별도상담 또는 지속적인 관찰이 함께 필요함. 이는 학생의 심리적·학습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 ③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에서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 신체접촉, 소외 조장 등에서는 학부모 상담과 보조인력 요구가 높게 나타남. 이는 교사 개인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부모, 상담 인력, 보조인력과 연계한 다층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수업방해행동 대응 방안 분석

1 수업진행 방해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부족·주의결여·흐름저해 → 주의·경고 우세 (대체로 27.9~53.5%) 수동적 거부 → 초·중은 훈육 (21.2%, 22.0%), 고는 주의·경고 (26.8%) 훈육불응·언어적 공격·신체적 공격 → 학부모 상담 중심
2 학생 단독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행동에서 주의·경고가 최다 (범주 평균 33.6%) 학습무기력 → 중·고는 별도상담이 최다 (28.4%, 30.5%) 과잉행동(초) → 보조인력 지원 26.9% 무단이탈 → 초 : 보조인력 지원 34.1%, 중 : 학부모 상담 23.1%
3 급우 수업 참여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소통·잦은소란·물건침해 → 주의·경고 우세 (22.7~55.7%) 신체접촉·신체공격·소외조장 → 학부모 상담 비중 큼 언어폭력(중) → 훈계 24.6%가 가장 높음 신체공격(초) → 학부모 상담 37.0%, 보조인력 지원 19.8%

학교급별 차이가 큰 수업방해행동별 대응

단위: 응답비율(%)

행동 유형	조건	상담	주의/경고	보조인력	학부모 상담
수업진행 방해행동	언어적 공격				초 46.5 중 35.0 고 27.2
	신체적 공격				초 39.1 중 31.0 고 22.3
	흐름 저해	초 12.9 중 18.7 고 29.0			
	훈육 불응				초 33.7 중 23.9 고 19.0
학생 단독행동	무단 이탈			초 34.1 중 15.9 고 11.5	
	과잉 행동			초 26.9 중 9.8 고 7.1	
	수면·휴식	초 8.7 중 12.1 고 20.6			
	학습 무기력		초 18.8 중 28.4 고 30.5		
급우 수업 참여 방해	소외 조장				초 35.1 중 23.5 고 17.0
	신체 접촉				초 33.8 중 23.2 고 18.1
	신체 공격				초 37.0 중 27.4 고 21.7
	잦은 소란		초 38.7 중 44.8 고 53.3		

■ 수업방해행동 대응에 대한 교육공동체 요구

- 교사는 경고, 즉각 제지, 분리 조치, 상담 등 수업 질서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과 관리 체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였고, 학생은 벌점, 조용한 지도, 떠들지 않기 등 명확한 규칙 적용과 안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음. 학부모는 상담, 부모 상담, 혼내기, 규칙 지도 등 가정과 학교의 연계 지도와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함.
- 종합하면, 세 집단 모두 수업 질서 회복을 원하지만 교사는 학교 대응, 학생은 공정한 지도, 학부모는 상담과 가정 연계를 더 중시하였음.

수업방해행동 완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워드클라우드

교사	학생	학부모
<p>규칙 만들기, 교실 벽 분리, 단호한 지도, 개별 지도, 주의 주기, 긍정 강화, 구체적 피드백, 규칙 제지기, 학부모 상담, 행동 계약, 보상 및 강화, 큰소리 단호한 지시</p> <p>경고 즉각 제지 자리이동 분리 조치 상담 수업 집중</p> <p>반성문 작성, 행동지도, 자리 배치 변경, 면담, 관계 지도, 규칙 강화, 집중 상담, 보상과 칭찬, 학부모 제출, 학생 반성, 영상·실제 활용, 수업 방해 예방교육</p> <p>주요 키워드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적 제지: 경고, 즉각 제지, 자리이동, 제지, 면담, 집중 등 환경·구조 조정: 자리배치, 교실 벽 분리, 자리 배치 변경, 분리 조치 등 상담·관계: 상담, 면담, 개별 지도, 학부모 상담, 집단 상담 등 교육·예방: 수업 집중, 규칙 강화, 수업 방해 예방교육, 학습 반성 등 강화·격려: 보상 및 강화, 긍정 강화, 보상과 칭찬, 격려 등 기후·학부모 연계: 반성문 작성, 행동지도, 학부모 제출 등 	<p>반성문, 퇴학, 정학, 욕설 말라고 하기, 수업 잘하고 있기, 게임·놀이 금지, 장난치지 않기, 재미·교재 압수, 조용히 하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제재하기, 조용하기</p> <p>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수업 끝내기, 반성하기, 벌금, 상벌제, 과제 지우기, 규칙 만들기, 수업 시간 늘리기, 실명 안하면 안하기, 수업 빼앗기, 왕따 안하기, 학부모에게 알리기, 태도 평가, 벌점 부여</p> <p>혼내기 벌 조용히 떠들지 않기 벌점</p> <p>주요 키워드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벌·제재: 벌, 혼내기, 정학, 퇴학, 벌금, 벌점 등 즉각적 제지: 조용히, 떠들지 않기, 조용하기, 제재하기 등 반성·인식 강조: 반성문, 반성하기, 생각하기, 학부모에게 알리기 등 교육·예방: 수업 잘하고 있기, 규칙 만들기, 수업 빼앗기 등 환경 통제: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게임·놀이 금지, 상벌제 등 기타(관계 평가): 수업 끝내기, 태도 평가, 벌점 부여 등 	<p>부모 교육, 대화하기, 가정 연계, 학부모와 소통, 예방교육, 관계 개선, 처벌 필요, 학교와 협력, 교실 벽 분리, 예방 예방 지도, 문제 행동 개선, 협의회 개최, 감정 coaching</p> <p>상담, 부모 상담, 대화하기, 소통, 정서 지원 등</p> <p>상담 부모 상담 혼내기 경고 규칙 지도 책임감</p> <p>정서 지원, 실천 점검, 규칙 만들기, 생활 습관 지도, 지속적 관심, 감정 조절, 긍정적 이해, 현장체험 지도, 과잉 관계 지도, 학교·가족 합수, 안전 교육</p> <p>주요 키워드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관계: 상담, 부모 상담, 대화하기, 소통, 정서 지원 등 교육·예방: 부모 교육, 연계 교육, 규칙 만들기, 규칙 습관 지도 등 제지·제재: 혼내기, 경고, 처벌 필요, 관심 점검, 과잉 관계 지도 등 책임·지도: 규칙 지도, 책임감, 생활 습관 지도, 실천 점검 지도 등 협력·지원: 학교와 협력, 가정 연계, 협의회 개최, 안전 교육 등

- 교육공동체 의견을 학교급별로 요약하면, 교사 의견에서 초등에서는 생활지도, 중학교에서 통제와 관계 관리, 고등학교에서 상담과 제도적 접근을 강조함. 학생의 경우 초등에서 단순 규칙과 벌을, 중학교에서 강한 처벌을, 고등학교에서 제도 차원의 의견이 많았음. 학부모의 경우 초등에서 훈육, 중학교에서 책임,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생활 관리를 중시하였음.

학교급별 교육공동체의 수업방해행동 완화 의견

교사	학생	학부모
<p>초 생활지도 중심</p>	<p>초 단순 규칙 + 벌</p>	<p>초 훈육 중심</p>
<p>중 통제 + 관계 관리</p>	<p>중 강한 처벌 요구 증가</p>	<p>중 책임 강조</p>
<p>고 상담 + 제도 강조</p>	<p>고 제도·불만 표현 증가</p>	<p>고 진로·생활 관리 강조</p>

Part 4 |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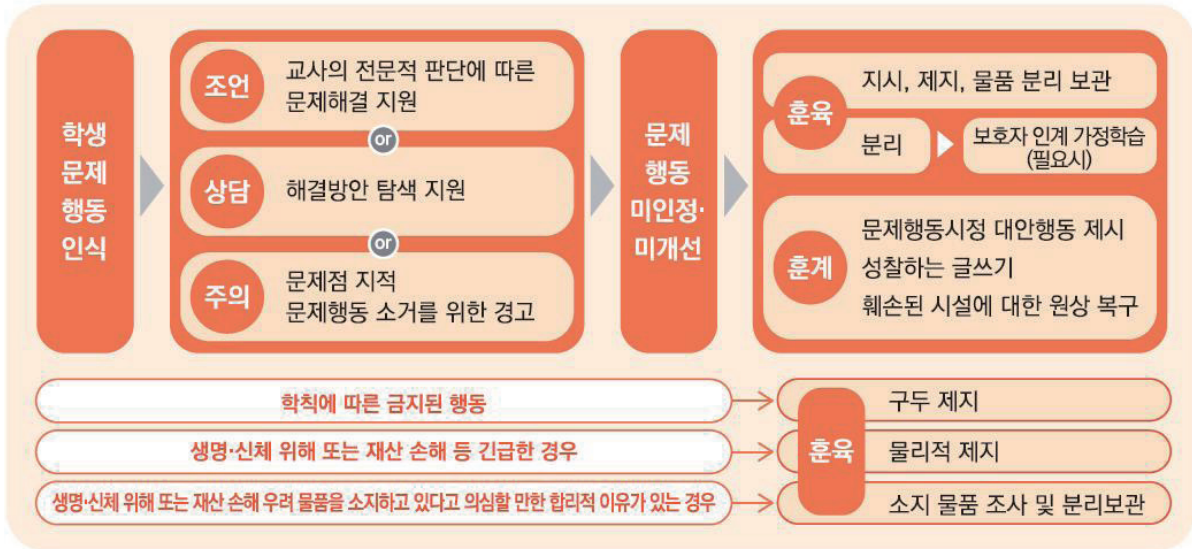
1. 요약

- 수업방해행동은 교사의 교육활동 진행을 어렵게 하고, 학생 자신은 물론이고 급우의 학습 집중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와도 일부 개념이 중첩되고 있음.
- 수업방해행동에 대한 경남 교육공동체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함. 이를 위한 설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 17,582명이 참여하였고, 수업진행 방해행동, 학생 단독행동, 급우 수업참여 방해행동의 세 범주에서 수업방해행동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함.
- 조사 결과, 세 범주 모두에서 교사가 학생·학부모보다 수업방해행동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는 교사가 수업 운영 전 과정에서 수업방해행동을 직접 경험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교사는 수업 흐름 저해, 준비 부족, 잡담·소란 등 수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에 민감하였고, 학생은 언어적·신체적 공격, 물건 침해 등 또래 간 직접 피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 학부모는 수동적 거부, 동기 저하, 준비성 결여, 근태 부실 등 가정에서 확인가능한 태도와 생활습관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방해행동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교사들의 주요 대응은 주의·경고가 기본이었으나, 학습 무기력, 공격 행동, 관계 갈등 등에는 학생(별도)상담, 학부모 상담, 보조인력 지원 등 보다 복합적인 대응 요구가 나타남.

2. 시사점

- 본 조사의 수업방해행동 3개 범주에 대한 전체 인식 평균을 구하면 교사 2.43, 학생 1.26, 학부모 1.20으로 다소 낮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총체적 수업방해행동을 24개 유형으로 분해하여 측정함으로써 나타난 착시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오히려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교육공동체 각 주체들 사이에 수업방해행동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컸다는 것임.
- 수업방해행동은 단순한 생활지도 문제를 넘어서 교사 수업권, 학생 학습권, 교실 공동체의 안정성과 연결된 교육정책 과제임. 따라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별로 수업방해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교사·학생·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대응이 요구됨.
- 또한, 학습 무기력, 회피, 수동적 거부는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학생의 학습동기, 정서 상태, 학생 개별 진로교육을 통한 동기 부여 방안 모색(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등의 생활습관을 함께 살피는 예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언어적·신체적 공격, 물건 침해, 소외 조장 등 관계 갈등형 행동은 교사 개인의 지도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상담교사, 관리자, 학부모, 외부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 학교급별로 초등은 기본 생활지도와 규칙 형성, 중학교는 관계 관리와 통제 기준 명료화, 고등학교는 상담·진로·생활관리 중심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수업방해행동의 완화는 처벌 중심을 넘어 수업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함께 실현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전략으로서의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 및 홍보 등 수업행동방해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일상적인 수업방해행동에는 주의·경고 등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행동(교육활동 침해행위 수준)에는 상담, 학부모 연계, 보조인력 지원, 분리 조치 등 단계적 대응 체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모형을 고려할 수 있음.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2023))]

참고 문헌

교육부(2024).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OECD 주관 교수·학습 국제조사 2018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23.10.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p. 14.
 신윤희, 문현미(2022). 수업방해행동에 대한 교사의 경험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8(4).
 이동엽 외 7(2019). 교원 및 교직원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18 결과를 중심으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이쌍철 외 4(2025). 교원 및 교직원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24 결과 분석.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함지혜, 조한익(2024). 초등학교용 수업방해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아동교육 33(2).
 OECD(2025), Results from TALIS 2024: The State of Teaching, TALI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0df6235-en>